

# 보육원 등 보호시설 퇴소 '만 18→24세'

22일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정부 시행령 의결  
희망자 모두 보호연장...만 24세 전 자립도 가능

오는 22일부터는 보육원 등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에 속한 아동이 만 18세가 되더라도 무조건 살던 곳을 퇴소하지 않아도 된다. 원하면 만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한 채 학업을 이어가거나 취업 등을 준비할 수 있다.

정부는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보호대상 아동은 지금까지 만 18세가 되면 강제 퇴소 후 사회에 진출, 자립해야 했다. 지난해 기준 국가보호아동은 약 2만4000명이며, 매년 만 18세가 돼 보호기간 종료 후 자립

하는 청년의 수는 약 2500명에 달한다.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직업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장애·질병 등으로 보호 연장이 필요한 아동만 제한적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됐다. 이 때문에 보호아동이 각자 자립 준비가 얼마나 됐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사회로 떠밀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사유 불문하고 아동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됐다. 지난해 12월 공포된 법은 오는 22일 시행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보호기간 연장 중

인 사람이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자립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호조치를 종료하도록 규정했다.

보호조치를 종료할 수 없는 예외사유로는 장애·질병 등으로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거나 지적 능력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로 명시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올해 국비 지원되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시·도별 설치 기준과 종사자 자격·배치 기준도 담겼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은 기관장 1명과 자립지원 전담인력 1명 이상을 갖춰야 한다. 기관장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 또는 정신건강전문문원 자격 등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 적정한 사례 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상담원 배치 기준도 조정했다. 각 가정위탁지원센

터에는 팀장 1명을 배치해야 하며, 관할지역 위탁아동 수가 400명을 넘는 경우 상담원이 6명어야 하는데 100명이 초과될 때마다 상담원 1명을 추가 배치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위탁아동이 200명이 넘을 때 상담원을 1명씩 추가하면 됐다.

아동복지시설 사업을 정지하거나 폐쇄할 경우에는 기존 아동과 보호자에게 전원 조치의 필요성·계획 등을 미리 설명하도록 하는 절차도 포함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위탁 요건도 완화했다.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아동복지 업무수행' 실적 요건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통합 실시 하던 성폭력 교육과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을 분리한다.

/뉴스

## 전남도 '농업인 월급제' 신청하세요...월 20만~250만 원

농협과 출하약정 한 농가 대상...이달 말까지 접수

전남도는 '2022년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희망 대상을 해당 시군 농협을 통해 신청받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농협과 농산물 출하를 계약해 판매하는 소득 금액의 60%까지를 월별로 나눠 미리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은 해당

농협과 지난 2월 업무협약을 맺쳤다. 농업인 월급제 참여를 바라는 농업인은 농산물 수확시기에 따라 이달 말까지 관할 농협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중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지역 농협과 출하약정을 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작목별로 평 3500㎡, 배 800㎡, 포도 780㎡, 사과 580㎡ 등을 기준으로

월 2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지급 한다.

지급 시기는 매월, 격월, 분기로 구분하며, 농가희망에 따라 오는 10월 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올해는 농업인 참여 증대와 수혜 대상자 확대를 위해 지원 품목을 오이, 토마토 등 5개 품목을 늘려 총 14개 품목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도에서 지원 대상을 확정했으나 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선정 권한을 각 시군에 부여했다.

/박종배 기자

## 한국에너지공대-녹색에너지연구원, 수소에너지 협력

공동연구과제 발굴 및 추진·정보 교류 등 업무협약 체결



한국에너지공대와 녹색에너지연구원이 14일 한국에너지공대에서 수소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전남도 청하 재단법인으로 해상풍력,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확산을 위해 연구개발과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연구개발, 교육 및 인력양성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교류 △인력교류와 교육과정 공동개발 및 운영 △공동 연구과제의 발굴 및 추진 △국내외 학술대회 및 포럼의 공동개최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주기호 기자

쓰레기·오물 뒤섞인  
아파트에 고양이 11마리 방치



광주 도심 아파트에서 고양이 11마리가 쓰레기와 오물 등이 뒤섞인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살고 있어 구호 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사)광주동물보호협회 위드 등에 따르면, 최근 광주 남구 한아파트 가구에서 고양이 11마리가 오물과 쓰레기가 뒤섞인 공간에서 살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해당 가구에 살고 있던 고양이들은 밥과 물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방치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자는 고양이 보호 책임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고양이들의 거처가 정해지지 않으면 방사하겠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단체는 고양이를 보호소로 옮기는 방법을 검토했지만 광주시 동물보호소는 이미 200마리 이상을 보호하고 있어 포화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양이 중성화와 건강 관리, 임양 등 구호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자체 등의 도움을 촉구하고 있다.

## 광주공공배달앱 위메프오 공모 수상작 선정

청년·청소년대상 진행...대상 '오메, 위메프오' 등 5편

광주시와 광주경제고용진흥원은 '광주공공배달앱 위메프오 영상공모전' 수상작 5편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광주공공배달앱 '착한(상생)소비' 문화 확산에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주 지역 청년·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수상작은 4월 25일부터 5월 27일 까지 접수된 19편의 작품을 대상으로 시민투표와 전문가 서면심사를 거쳐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우수상 3편 등 총 5편을 선정했다.

대상작으로 선정된 '오메, 위메

프오'는 지역사투리를 활용해 친근감 있게 광주공공배달앱의 이용 헤택을 지역민에게 소개해 호평을 얻었다.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공정배달, 착한소비 위메프오'는 공정배달, 착한소비를 중심으로 타 앱과 차별화된 운영목적과 장점을 들을 모션그래픽 영상으로 표현했다.

이 밖에도 '배달앱 벨런스게임', 'MZ세대 따라하는 오사장', '역사를 바꾼 위대한 공공배달' 등 창신한 아이디어로 제작한 3개의 작품이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김용범 기자

## 광산구 소촌농공단지, 문화·예술로 활력

'산단 환경조성' 아름다운 거리 분야 공모 선정

광산구는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단지공단)가 추진한 '2022년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공모에서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조성 분야'에 소촌농공단지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작공 후 20년 이상 된 총 473개 국가·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한 이 사업은 △복합문화센터 건립 △혁신지원센터 구축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4개 분야로 공모가 진행됐다.

이번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광

산구는 2년간 총사업비 14억 2000만 원(국비 10억 원, 지방비 4억 2000만 원)으로 소촌농공단지 3개 구간(하이파이브 거리, 드림비전 거리, 힙스팟 거리)을 지정, 문화·예술을 가미한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화 디자인을 활용한 벽화와 정원, 거점별 '스팟(spot)' 문화공간, '팝업(pop-up)' 놀이터, 미디어 아트존 등을 만들어 시민과 노동자가 언제든 문화를 즐기고, 휴식과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동기 기자

## 현대제철 대책위, 불법파견 소송 선고연기 규탄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전남동부지역 범시민대책위(이하 현대제철 대책위)는 14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소송 재판이 또 다시 연기된 것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현대제철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에서 "동일 사안에 대한 판결이 이미 1차 소송자들에게 내려졌는데 2, 3차 소송자들의 재판이 6년을 넘어 오늘까지 올 수 있는가. 연기

된 7월 7일이 최종판결이 아닌 회사 측의 변론을 들겠다는 것"이라며 허탈한 심정을 성토했다.

이어 "선명한 시실은 이미 1차 소송자 판결에서 밝혀졌듯이 더 다투거나 변론 싸움을 할 것이 없음을 재판부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인간답게 살고픈 희망을 꿈꿔왔던 비정규직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하루 속히 판결을 내려 사법부가 법과 원칙을 지키고 있음을 보여달라"고 주장했다.

/순천=조준의 기자

# 농장직영 진남 맴생이탕

예약문의 : 010-3925-3842

농장직영

염소탕

수육

오리탕

닭볶음탕

박래섭  
010-6480-3842

전남 장성군 남면 못재로 221  
061)395-7977